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0호
2009. 7.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신재철 ■ 편집인 염민호, 김소영
■ 주소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405호
■ TEL 062-530-0625 ■ FAX 062-530-2359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학교 개혁과 학교건설팅

진 동 섭(본회 부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이명박정부 초·중등학교 교육개혁의 특징의 하나는 특성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전형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새로운 형태의 고등학교 300개를 2012년까지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반계 고등학교 100개교를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드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면서 정부가 새롭거나 특색 있는 학교의 유형을 규정해 놓고, 학교들을 공모해서 재정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간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교육 개혁의 노력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도가 미흡한 학교들을 선정해서 성취도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단위학교 차원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교과 교실을 설치해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이들은 모두 단위학교를 선발해서

직접 지원하고 단위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국책성 사업을 위해 선정되는 학교수는 2009년만 대략 2,500개 정도에 이르고 2012년에는 7,500개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전국의 초중등학교수가 12,000개 정도로 생각하면 금년만 20%의 학교가 어떤 종류의 학교 만들기 사업에든 참여하게 되고 2012년에는 63%에 가까운 학교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들 학교에는, 사업에 따라 규모가 다르겠지만, 대략 연간 5,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원까지 지원될 것이다. 정말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일선 학교에 풀리는 것이다.

국가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선발된 일선 학교에 투자하는 방식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은 이전의 획일적 관료적 통제적 접근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학교 개혁 사업 성공의 요건

학교의 유형이나 특성을 규정해 놓고,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학교 개혁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나는 일선학교의 사업 수행 역량이고 다른 하나는 일선학교의 수행에 대한 지원 체제이다. 전자는 일선학교가 특정 목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일선학교의 역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것의 해결을 도와주는 조직이나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구성원들은 우선적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의 배경, 취지,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학교의 환경, 여건,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조정 해결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계획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활동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단위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로는 다른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급교육행정기관의 도움 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위학교의 노력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물적 지원, 인적 지원, 기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지원들이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이루어지는 체제가 구비되어야 사

교육 없는 학교 만드는 일과 같은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3. 학교와 지원체제의 현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요건들이 얼마나 충족적으로 구비되어 있는가? 일선학교는 특정 사업 수행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다.

단위학교는 교육조직이다. 단위학교는 학생 교육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교육 전문 조직이다. 따라서 학년 반 조직, 교과별 교사 조직, 그리고 교무 분장 조직이 기본이다. 이러한 하위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구성원은 교원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정책·제도 이해 능력, 새로운 학교체제나 프로그램 기획력, 계획 추진 조정 및 갈등 조정력, 실행 과정 및 결과 평가 능력 등은 교원들의 전문적 역량이 아니다. 물론 교원 중에는 그런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행정가나 경영자의 역량에 속한다. 그러한 교원들에게 갑자기 정해진 기한 내에 정보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재구조화해서 운영하라 하거나, 사교육 없는 학교를 기획해서 시행하라 하거나, 혹은 특색 있는 학교를 구상해서 운영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교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니 계획서를 급하게 만들어 신청을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선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하자니 어려움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실 이런 경우에 교원과 일선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의 형편도 어렵기 마찬가지다. 행정가나 전문직 모두 기존의 일상적인 행정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두 학교라면 모르겠지만, 관내 많은 학교들이 동시에 새로운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그것을 꼼꼼히 지켜보고 지도 조언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4. 학교컨설팅의 필요성

이미 많은 수의 학교들이 교육 혁신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매년 수행한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단위학교의 경우 본질적으로 혁신 사업을 기획, 시행,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해줄 지원체제 역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컨설팅이 답이 될 수 있다. 학교컨설팅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 활동"이다(진동섭, 2003, 51). 학교

컨설팅은 교원이나 학교조직구성원들이 학교 경영이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과제들이 있을 때, 이들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전문가들이 문제와 과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하여 조직하는 일이다. 학교컨설팅은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이고 동시에 그것을 지원하는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컨설팅 의뢰인은 교원 개인, 소집단, 혹은 단위학교 구성원 전체가 될 수 있다. 학교컨설팅트는 의뢰인의 문제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학교컨설팅트라는 공식적 직업은 아직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잠재적 학교컨설팅트 집단은 40만 교원이다. 이들 중에는 특정 분야 혹은 영역에 대한 지식, 기술,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발굴해서 학교컨설팅 윤리, 방법, 기법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 훌륭한 학교컨설팅트가 된다.

학교컨설팅은 자신의 교실 안에서만 쓰여지고 자신의 학교 안에서만 발휘되는 뛰어난 교원들의 역량을 옆 반 교원과 옆 학교 교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유하자는 운동이다. 단위학교 개혁은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공유해서 교원들이 주체적으로 성취하자는 것이 학교컨설팅의 이념이다.

5. 학교컨설팅 실현을 위한 과제

학교컨설팅이 학교 개혁을 위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개혁의 새로운 지원체제로 교직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컨설팅트 요원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 집단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드물다. 교실에 숨어있고 학교 울타리 감추어진 우수한 교원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이나 직무(행정이나 경영) 혹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기술, 지혜의 수준이 뛰어난 교원들이다. 즉 내용 전문성이 우수한 교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대로 학교컨설팅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컨설팅트의 윤리의식, 학교컨설팅 방법과 기법과 같은 방법 전문성을 습득해야 한다.

둘째로는 의뢰인들이 부담 없이 학교컨설팅을 의뢰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수업 컨설팅이나 학교경영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교원 개인이 사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컨설팅은 장학과는 다르다. 의뢰자의 자발성의 원리가 훼손되거나 컨설팅의 내용을 교원 인사에 반영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셋째로는 훈련된 학교컨설팅트들이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아 자유롭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는 수업 시수와 업무 부담 경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인

사, 금전 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로는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학교컨설팅트 풀(pool)을 구축하고, 의뢰인들의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등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뢰인과 학교컨설팅트 사이에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환경적 조건을 구비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업의 하나다.

학교 개혁을 위한 사업은 벌써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여건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컨설팅이 대안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이제 막 움이 트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컨설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학교컨설팅 연구와 실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진동섭 (2003). 학교컨설팅: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 방법. 서울: 학지사.



〈 2009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3차 학술대회 〉



I 논단 II

학교컨설팅의 이해와 활성화 방향

김 도 기(한국교원대학교)

1. 서언

강원도의 어느 사립 고등학교는 학교 비전의 혼란과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고, 현재 그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청도의 어느 특수학교는 교직원의 무기력, 의사소통의 부재,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 직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컨설팅을 받아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 경기도의 어느 고등학교는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수업 및 생활지도 영역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교직사회화 시킬 수 있는 교내 경력 교사들이 부족하여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

지금 소개한 것처럼, 요즘 학교는 학교가 당면한 문제 또는 과제와 관련하여 자신을 포함한 내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른바 학교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컨설팅은 학교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원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에듀넷의 수업컨설팅이나 서울시교육청의 수업지원단, 경기도교육청의 PCK 수업컨설팅단 등이 그 예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에서 수업컨설팅, 컨설팅장학 등의 이름으로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시쳇말로 컨설팅 세상이 된 것 같다.

컨설팅은 비단 학교 조직에만 뜨고 있는 키워드는 아니다. 기업이 주로 하는 기업(경영)컨설팅뿐만 아니라 금융컨설팅, 보험컨설팅, 법률컨설팅, 의료컨설팅 등 우리 사회에 컨설팅이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엔 전국방방곡곡에서 컨설팅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바로 부동산컨설팅이다. 복덕방,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불리던 이곳이 언제부턴가 부동산컨설팅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컨설팅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학교컨설팅이 생기고 활용되는 것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컨설팅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워 보인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하나는 보급률과 속도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컨설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에 학교컨설팅 이론이 처음 소개되었는데, 불과 4-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교원임용고시에 학교컨설팅 관련 문제가 출제된 이후론 대학생들도 이 개념을 어렵잖게나마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컨설팅을 받은 학교나 교원의 반응이다. 학교경영컨설팅을 받은 어느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말 못할 괴로움과 답답함이 많았는데, 컨설턴트들에게 털어 놓으니 그 자체로 속이 후련하고 문제가 해결된 듯한 느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업컨설팅을 받은 어느 학교 선생님은 "기존의 활동들은 '학교 일'이나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컨설팅은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애착이 간다."며 학교컨설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러한 반응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공존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너무 빠른 보급률이 오히려 학교컨설팅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이 보급되고 있어 지나친 실적 위주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원과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개선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학교 현장의 여건상 정작 도움을 받고 싶은 각 학교의 교원들은 내·외부 컨설턴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 아닌 학교컨설팅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컨설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학교컨설팅의 성격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학교컨설팅의 이해

학교컨설팅이란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체제 내외 전문가들이, 문제와 과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활동"이다(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9: 31). 이러한 학교컨설팅의 개념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학교컨설팅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학교컨설팅의 의뢰인은 누구이며 컨설턴트는 누구인지, 학교컨설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가. 학교컨설팅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학교컨설팅의 목적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이러한 목적은 모든 형태의 학교컨설팅의 방향과 논리의 기반이 된다. 구체적인 학교컨설팅의 목표는 1) 학교와 학교구성원의 문제 해결, 2) 학교의 내적 교육 역량 강화, 3) 학습공동체 문화 형성, 4)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학교 구축 등이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학교컨설팅의 구체적인 목표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규정되거나 적어도 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해도 그것이 의뢰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학교컨

설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 학교컨설팅은 누가 의뢰하는가?

학교컨설팅의 의뢰인은 한마디 말해서 학교 교육이나 학교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의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와 그 구성원이 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일선 학교의 교원이라는 것이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이다.

다. 누가 학교 컨설턴트가 될 것인가?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학교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현장의 실무 경험이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일선 학교의 우수한 교원들이 최고의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이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된 분야의 교수나 전문 연구원들이 컨설턴트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전문직이나 교육행정가도 컨설턴트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 법률가,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학교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라. 학교컨설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문제는 실수나 실패, 결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문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학교컨설팅은 수준이 떨어지는 교사들이나 의뢰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교컨설팅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런 통상적인 의미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 분야에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관련 업계 순위가 바닥을 기고 있는 기업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개는 우수하고 선도적인 기업들이 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컨설팅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보다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교사,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학교컨설팅을 의뢰한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에서 말하는 문제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교컨설팅의 의의

학교컨설팅은 의의는 학교컨설팅이 갖는 고유한 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학교컨설팅이 학교나 교원

들에게 매료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기존 활동과의 차이를 통해 학교컨설팅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 학교컨설팅과 흔히 비교되는 장학과 그 차이를 짚어보자. 학교컨설팅이나 장학의 개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장학과 수업컨설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두 활동 모두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참여자 간의 관계, 구체적인 과업 및 과업 결정 과정, 역할 특성, 책임 소재, 결과 활용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업 결정 및 지원 과정에서의 차이이다. 장학의 과업은 학교나 교육청의 정책이나 지침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학의 과업이 장학 대상인 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제공되는 과업 지원 역시 장학담당자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장학담당자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중심으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컨설팅의 과업은 철저히 의뢰인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놓여진다. 수업컨설팅도 의뢰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수업컨설팅을 받은 교사들은 "수업컨설팅은 내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수업컨설팅이 갖는 두 번째 의의는 수업컨설팅이 성인교육의 원리에 매우 부합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학습자이다. 여기서 교사는 성인학습자이라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직업의 특성상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하고, 학습의 성패에 따라 교육의 성패도 의존된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학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 학습자로서 교사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 학습 설계시 성인학습의 원리가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 학습 주제, 방법 등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나 다양성, 학습 내용의 실용성, 학습과정의 중시 등이 성인학습의 대표적 원리들이다(배을규, 2006). 이러한 성인학습의 원리들은 학교컨설팅의 원리와 매우 부합한다.

수업컨설팅의 세 번째 의의 역시 교사의 학습과 관련이 있다. 학습스타일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학습스타일이 있다(Dunn & Dunn, 1979). 성인학습자인 교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습에 있어 다양한 학습스타일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수스타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에 있어서 교수스타일과 학습스타일의 매칭이 중요하다(Dunn & Dunn, 1979). 그러나 현재까지는 연수 등 전통적인 교사 학습 프로그램에서 이를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수업컨설팅은 주로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학습스타일에 맞는 컨설턴트의 지원이 제공되므로 교수스타일과 학습스타일의 매칭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컨설팅의 몇 가지 특성들은 교사들이 기존의 학습 방법 대신에 학교컨설팅에 매료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1〉 수업장학과 수업컨설팅의 비교

준 거	수업장학	수업컨설팅
영역	· 교사의 교수·학습 관련 영역	· 의뢰인이 요청하는 수업관련 문제
참여자 간 관계	· 장학 담당자 및 장학 대상자의 상하 관계	· 의뢰인과 수업컨설턴트의 수평적 관계
구체적인 과업 및 과업 결정 과정	· 문제 진단, 대안 수립, 해결과정 지원 · 장학 담당자가 사전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장학 담당자와 장학 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과업 결정	· 문제 진단, 대안 수립, 교육 훈련, 해결 과정 지원, 자원 발굴 및 조직, 네트워킹 · 의뢰인과 수업컨설턴트가 협의하여 결정
역할의 특성	· 장학 담당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서 오는 형식적 전문성 중심	· 의뢰인의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 전문성 중심
책임 소재	· 장학 활동의 최종 책임은 장학 담당자에게 있음	· 수업컨설턴트는 자문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책임이나 지시의 권한은 없음 · 수업컨설팅의 최종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음
결과의 활용	· 전문성 향상 및 교사 평가 자료	· 의뢰인의 전문성 향상

4. 학교컨설팅의 성격

여기서 학교컨설팅의 성격은 이론적, 실제적 지향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학교컨설팅이 이론적 담론 형성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현장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컨설팅은 철저히 현장 중심 교육 실천 이론이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장 중심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컨설팅의 목적 또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학교컨설팅의 목적이 도움을 원하는 학교나 학교구성원들의 지원에 있기에 당연히 현장 중심으로 학교컨설팅 논의와 실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학교컨설팅은 이론이긴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현장의 개선에 있다. 현장의 개선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 실천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개선의 사례, 즉 실천은 기존 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요즘 교사들의 지식 중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PCK의 공유 및 유통은 컨설팅 활동을 통해 더욱 용이해지게 되며, 이렇게 축적된 PCK는 기존의 교사 지식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하게 된다. 요컨대, 학교컨설팅은 실천 운동이면서,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기존 지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5. 학교컨설팅의 활성화 방향

학교컨설팅은 외형적으로는 지나치게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학교컨설팅이 지향하는 의뢰인과 컨설턴트 간의 자발성과 전문성, 독립성, 학습성, 자문성, 한시성 등에 기반하는 순수한 의미의 컨설팅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런 점에서 향후 학교컨설팅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컨설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름만 컨설팅이 아니라 내용, 방법, 원리 등이 철저히 학교컨설팅 이론에 기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점은 앞 부분에서 언급한 학교컨설팅의 이해에서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교컨설팅 이론에 기반한 고유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수업컨설팅을 예로 든다면, 수업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업컨설팅의 절차와 기법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수업을 보는 관점, 수업개선의 의미, 수업관찰 및 분석의 방법 등에 있어서 수업컨설팅 고유의 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컨설팅은 현장 기반 이론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칭 '메타 학교컨설팅'의 활용이다. 아직까지 학교컨설팅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학교경영이나 수업, 생활지도 등에서 주변의 도움을 원하는 교원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내용적 방법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들을 도와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완성된 이론을 개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시·공간적 거리 제약, 전문적 훈련을 받은 컨설턴트의 부족, 영세한 재정 등 현재의 여건상 학교컨설팅이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메타 학교컨설팅이다.

메타 학교컨설팅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컨설팅 팀을 구축한다. 이들은 메타 컨설턴트가 된다. 둘째, 단위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컨설팅 단을 구축한다. 이들은 컨설턴트(또는 지역컨설턴트)가 된다. 그리고 컨설팅관리자도 지정한다. 셋째, 컨설팅 의뢰를 받는다. 넷째, 컨설팅관리자가 의뢰인과 컨설턴트를 연결한다. 다섯째, 컨설팅이 진행된다. 여섯째, 지역컨설턴트는 컨설팅 과업 중에 필요한 경우 메타 컨설턴트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 지원은 주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메타 컨설팅은 수요에 비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컨설턴트 수와 그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최근 들어 교육개혁은 거시적인 제도와 정책 중심에서 단위학교의 개선 중심으로 그 초점이 바뀌고 있다. 단위학교의 개선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선 교원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다.

요컨대, 일선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이다.

일선 학교의 자생적 활력은 구성원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창조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들의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컨설팅은 교원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이다. 교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개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이다. 실천적 학문인 교육행정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배을규(2006). 성인교육의 실천적 기초. 학지사.

진동섭, 홍창남, 김도기(2009). 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컨설팅. 교육과학사.

Dunn, R. S. & Dunn, K. J.(1979). "Learning Styles/ Teaching Styles: Should They... Can They...Be Matched?". In R. Brandt(Ed.)(1979). Educational Leadership(pp. 238-244). ASCD.



〈학교컨설팅은 교원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이다.〉



Ⅰ 논단 Ⅱ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방안

유 길 한(진주교육대학교)

1. 대학원생 연구의 필요조건

최근에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에 대한 양적·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물리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대학의 연구기반시설 강화이고,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노력이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적 측면의 연구역량 강화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므로 어느 한 가지만 강화되었다고 대학의 전체적 연구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는 연구환경의 질적 우수성, 지도교수의 연구지원, 대학원생 자신의 연구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생활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할 것이다.

우선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연구환경은 물리적 연구환경과 심리적 연구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환경으로서 연구환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풍부한 대학(원) 도서, 내외 학술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전자도서관, 네트워크가 가능한 컴퓨터 시설,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연구공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심리적 환경으로 동료 대학원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동료와 다른 다양한 연구관점의 수용과 인정, 지도교수와의 심리적 공감, 역할 갈등의 해소 기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지도교수의 연구지원은 교수로서, 멘토(mentor)로서, 선배연구자로서, 동료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은 대학원생의 학위과정에 따라 역할 변화의 필요성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심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연구과정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능력에 대한 상호보완성과 깊은 연관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대학원생 자신의 연구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생활을 들 수 있다. 우선 대학원생의 연구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만의 연구관점의 정립, 방법론적 수월성과 언어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물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들 수 있으며, 대학원생

의 연구를 위한 생활은 규칙적 연구활동을 위한 행위, 지도교수와 연구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의 정리, 다양한 연구경험을 위한 참여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통한 연구역량은 미래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미리 연습하는 '도제적 성격이 강한 연구실습과정'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를 위한 물리적 환경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물리적 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내면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내면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장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학문탐구의 길에 들어서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전공 관련 서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의 경우 도서관의 검색과 검색된 도서관의 개정판 여부를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에 전공자인 사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공사서가 근무하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서에 관한 정보는 지도교수와 선배 연구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정보는 외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지도교수는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읽어야 할 전공서적의 로드맵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도서관 역시 어떠한 전자 학술지를 구독하고 있는가와 구독되는 전자 학술지를 어떠한 색인을 가지고 탐색하는가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전자 학술지의 탐색과 구독되는 학술지 목록의 관리는 외국의 경우 전공 전문사서가 관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공사서가 없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지도교수와 선배 연구자들로부터 검색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공 관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정보의 습득은 지도교수 혹은 선배연구자의 연구를 보조 혹은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자신의 관심 영역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대학원생의 연구 역시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공간은 되도록이면 도서관에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공간은 (전자)학술도서 및 (전자)학술지의 접근성 측면에서 집단열람실로 운영되기 보다는 자신의 전공 관련 서적을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탐독하기위하여 개별적 공간으로 장서가 있는 공간에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를 위한 심리적 환경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환경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 가치라고 본다면, 심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는 다르게 가치 내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환경은 대학원생에게 연구의 의미를 고양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심리적 요인으로 동료 대학원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각 대학간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다양한 학부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는 대학원생이 특정한 대학원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학부의 학문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대학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제한한다. 따라서 전공별 대학원은 학부의 학문적 배경에 의한 연구공동체의 형성이 아니라 학문적 성향과 관심에 따른 연구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고양되어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원 연구의 다양한 연구관점의 수용과 인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즉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은 미래에 창의적 연구 작업을 위해서 학문연구 분야에 대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논문이 얼마만큼 창의성을 가지고 학계에서 평가될 것인가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리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연구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 혹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덧붙여 새로운 학설과 이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은 지도교수와 어떠한 심리적 공감을 형성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학원생의 연구과정은 초기에 대체적으로 지도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지도교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는 성실한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도교수가 학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학생은 왕성한 탐구의욕을 가지고 지도교수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견의 수용과 거부에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의 학문을 탐구하는 활동은 결국 다양한 인간관계를 수반한다. 대학원 내 인간관계의 갈등은 한 학기 혹은 그 이상의 학기의 학문 탐구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갈등은 인간이 사는 어떤 사회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 탐구 과정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제로 경쟁적 갈등 보다는 협력적 갈등을 고양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할 때, 비로소 학문탐구를 위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를 위한 지도교수의 역할

지도교수는 학생의 흥미를 파악하고, 학생에게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개방성과 진실성을 실천하고, 학생의 성취를 뒷받침하고, 연구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고,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도교수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교수(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로서, 멘토(mentor)로서, 선배연구자로서, 동료연구자로서 다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적 역할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교수)로서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전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한 전공분야에서 갈라져 나온 세부영역을 가르칠 다양한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행정 전공은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구분되는데 이 전공에 세 명 이상의 교육행정 전공자를 가진 대학(원)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컨소시엄보다는 '대학간에 전공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양한 전공의 흥미에 대학원생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로서의 역할은 주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서 중요하다.

둘째, 멘토(mentor)로서 지도교수는 끊임없이 진실성, 정신적 신뢰, 믿음, 학생에 대한 희생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사제관계는 지속성이 부족하지만, 정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제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가치는 지속적 공동연구의 가치를 생산하고, 다양한 사고위에 특정 학문의 전통을 전달하면서 학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학파는 지속적으로 대학원생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될 수 있다.

셋째, 선배연구자로서 지도교수는 그 동안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겪었던 어려움을 전달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도교수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에서 자신의 관심영역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술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구방식 혹은 지식의 습득 방식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대학원생에게 전달하여 후배 연구자로서 대학원생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하기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료연구자로서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을 최종적으로 학문적 독립의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원 과정 이후의 과정(post-doctor)과 관련될 수 있다. 대학원생이 학문적으로 거의 독립한 상태에서 지도교수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제적 관계를 철회하고, 새로운 성숙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생산한 지식의 가치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활용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을 도제적 연구실습과정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5. 연구를 위한 대학원생 자신의 역할

지금까지의 역할은 대학원생 자신이 지도교수를 포함하는 다양한 타인으로부터 주로 받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대학원생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는 요원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대학원생 자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생의 학문적 배경은 최근에 무척 다양해졌다. 이러한 점은 학문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합할 수 있으나, 학문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한 학문분야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수적인 전공서적과 관련서적(우리전공의 경우는 철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등)을 지속적으로 탐독해야 한다. 이러한 학문적인 탐색은 자신만의 연구관점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교육적 실천에서 교육적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다양한 학술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근거가 미약한 당위론적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원생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구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구방법론에 익숙해 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최소한의 연구방법론의 수월성은 방법론 관련 전공분야(통계학, 경영학, 인류학 등)와의 지속적 협력학습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대학원생은 국제화된 연구환경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국제화된 연구환경에 연구논문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논문을 읽는 수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된다. 이 두 가지는 언어적 측면에서 학술논문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연구 방법론적 수월성을 가지고 연구논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으로 학술논문을 읽는 것은 기본적 능력으로 하더라도, 방법론을 해석하면서 학술논문을 읽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이 특정한 연구방법론을 특화하여 공부하였을 지라도 다른 연구방법론으로 쓰인 논문에 대하여 '해석의 수월성'이 존재해야 '비판적 논문 읽기'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논문의 주제가 개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 자신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은 규칙적 연구활동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기말 과제에서 자신이 공부한 과제를 이론적과 실증적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도교수와 연구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을 하고, 도출된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의 정리하고, 다양한 연구경험에 위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6. 지속성장가능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우리는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이 대학원생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해 왔다. 그리고 대학원과정의 학생두뇌 유출이 대학원생 개인의 선호 혹은 대학원생 가족의 재정지원의 영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는 연구환경의 개선, 지도교수 다양한 역할 강화, 대학원생 자신의 연구에 대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대학은 대학원생의 개인적 연구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학원생의 종합적 연구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대학원생이 재정적 압박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의 선진화를 추구해야한다. 다음으로,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학문분야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학문분야와 과학적 연구방법의 통섭(consilience)을 강조하고 대학원생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수요원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학문 영역의 연구 분야는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한 연구와 분야별 특성화에 따른 국제적 연구에 대학원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를 달성하기위한 지속적 노력은 지속성장가능한(sustainable)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만들 것이다.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는 연구환경의 개선, 지도교수 다양한 역할 강화, 대학원생 자신의 연구에 대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I 교육행정사 칼럼 2회

"학교를 흥(興)하게 하라" : 전통사회 지방관의 책무

박 수 정(안양대학교)

지난 칼럼(뉴스레터 제96호)에서 '전통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16세기를 기준으로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경우 우리의 지방 관학(官學)의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밝혔다. 지역민의 교육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전통이며, 여기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방관의 역할'이었다.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으로 대표된다. 관찰사는 도(道)의 최고행정가로서 오늘날의 시·도지사에 해당하며, 수령은 읍(邑)의 최고행정가로서 오늘날의 시장·군수에 해당된다.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되었고, 관할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 등 지방행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였다. 교육에 대한 행정 또한 이들이 수행하였는데, 교육행정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책무(責務)'가 된 것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변화였다.

조선시대는 전국의 모든 읍, 즉 330여개의 군현(郡縣)에 관학으로서 향교(鄕校)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이 지방관에게 부여된 것이며, 지방관의 평가 항목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수령의 평가 항목으로서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학교흥(學校興)',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簡)', '간활식(奸猾息)' 등 수령7사(守令七事)가 수록되었다. 즉 농상의 번성, 호구의 증가, 학교의 진흥, 군정의 정돈, 부역의 균등, 사송의 간략, 간활의 금지가 수령이 평가를 받는 주요 행정 업무로 확인된 것이다.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학교흥'이 거론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찰사(觀察使)는 관내 수령의 실적을 이러한 칠사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매년 2회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다.

그렇다면 '학교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수령7사의 각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몇 가지 사실(史實)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학교흥'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기 전, 태종 때 사헌부에서 건의한 수령 평가의 항목 가운데 '수명학교(修明學校)'가 있다. 이것은 '학교 몇 간(間) 중 수리한 것이 몇 간이며, 생도 몇 명 중 독서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경서를 통한 사람은 몇 명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학교시설, 실제 학생의 수, 우수한 학생의 수가 구체적인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1482년(성종 14년) 평택현감으로 부임하는 변징원(卞澄源)에게 국왕이 '학교흥'의 방법을 묻자 '때

때로 유생들을 모아 경의를 강하고 제술을 시험하여 학업에 부지런하도록 하면 학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지방관이 직접 강론하고 평가하여 학업을 촉진시킬 것을 학교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국대전』에 실려있는 지방관의 교육행정 업무를 통해 학교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지방관의 교육행정 업무로, 1) 교육활동의 점검 및 평가, 2) 학교 의례의 주관, 3) 시설의 관리·감독, 4) 수령의 감독 및 평가, 5) 도회(都會)의 운영, 6) 향시(鄕試)의 주관, 7) 각종 장권(獎勵) 행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육활동의 점검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생(校生)이 읽은 책의 일과(日課)는 매월 말에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순행(巡行)하면서 고강(考講)하고 학령(學令)에 의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며,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교관(敎官)을 전최(殿最)할 때 참고로 하고 그 월과(月課)·일강(日講) 성적이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을 헤아려 감해준다.¹⁾

위 규정을 쉽게 설명하면, 향교 교생의 학업 상황을 매달 수령이 파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관찰사는 관내 읍을 돌아다니면서 고강(경서에 대한 구두 시험)하고 상벌을 주며, 이를 교관을 평가할 때 반영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호역(세금의 일종)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태종 때 '수명학교(修明學校)'에서 독서하는 학생의 수, 경서를 통한 학생의 수로 수령의 실적을 파악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수령으로 하여금 평소 향교의 교육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수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관찰사에게는 도내 교생에 대한 고강 업무가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교관의 평가와 성적 우수자의 포상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육상황의 파악과 점검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관이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도 내포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활동을 직접 점검하고 보고하는 일을 지방관이 담당하였다는 점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것, 그리고 그 성과를 제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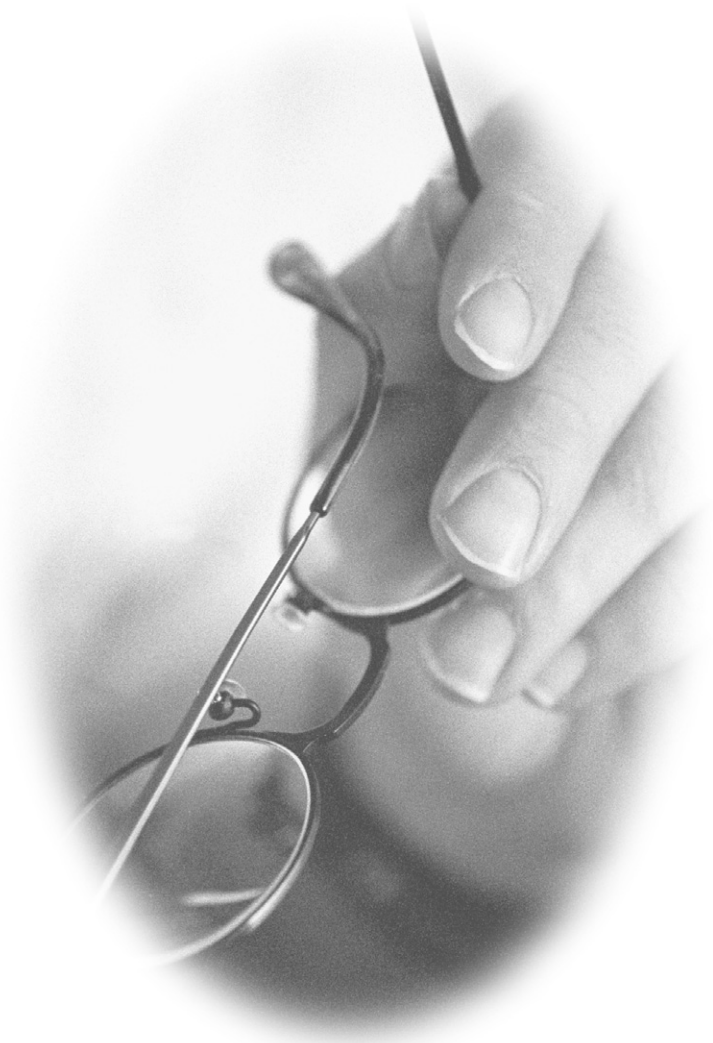
'학교흥'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교육행정가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지방관의 새로운 직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령의 평가 항목으로 제시된 수령7사가 실제로는 수령의 직무 기준으로 인

1) 『경국대전』예전 장권 : 校生所讀書日課 每月季守令報觀察使 觀察使巡行考講 依學令勸懲置簿 敎官殿最時 憑考 其月課日講優等者量減戶役

2) 『부산경남향교기문』51. 명륜당증수기(산청향교, 1870).

식되었을 확률이 높다. 수령이 수행하는 지방행정 가운데 필수적인 직무이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령7사의 '학교흥' 항목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며, '학교의 흥폐는 수령의 책임' ²⁾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지방관들은 이러한 '학교흥'의 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을까? 경국대전의 규정은 단순히 규정이었을 뿐 실제의 행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 (뉴스레터 제102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학회 활동 안내

1. 제37대 학회 조직 구성

가. 회장단

회 장: 신재철(전남대)
 부 회 장: 진동섭(KEDI)
 감 사: 정성수(남: 인제대), 이선희(여: KEDI)

나. 이사회

〈당연직〉(30명)

김영식, 이 중, 신극범, 윤형원, 김윤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진동섭

〈선임직〉(35명)

공은배(KEDI)	김남순(조선대)	김성열(평가원)	김명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이경(충남대)	김재웅(서강대)	김태완(계명대)	김홍주(KEDI)
박남기(광주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세훈(전북대)	박영숙(KEDI)
박재운(KEDI)	반상진(전북대)	송광용(서울교대)	송기창(숙명여대)
신현석(고려대)	엄상현(교육과학기술부)	염민호(전남대)	유현숙(KEDI)
이운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임연기(공주대)	임용순(강원대)
임천순(세종대)	정연한(인천교육청)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최충욱(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허병기(교원대)		

다. 분과위원회

1) 기획위원회

위 원 장: 신현석(고려대)
 부위원장: 박상완(부산교대)
 위 원: 박선형(동국대), 신정철(서울대), 이병식(연세대), 이석열(남서울대),
 정수현(서울교대), 채재은(경원대), 한신일(성균관대)

2) 학술위원회

위 원 장: 한유경(이화여대)

부위원장: 신상명(경북대)

위 원: 김병찬(경희대), 김희규(신라대), 남수경(강원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이정미(KEDI), 하봉운(경기대)

3) 편집위원회

위 원 장: 박세훈(전북대)

부위원장: 김혜숙(연세대)

위 원: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동석(한남대), 김재웅(서강대), 박소영(KEDI),
손희권(명지대), 오현석(서울대), 윤홍주(춘천교대), 홍창남(부산대)

4) 국제학술위원회

위 원 장: 김이경(충남대)

부위원장: 고전(제주대)

위 원: 공병호(오산대), 권인택(전북대), 김갑성(KEDI), 양정호(성균관대),
우명숙(교과부), 이태상(상지대), 황준성(한국교총교육연구소),

5) 홍보·규정위원회

위 원 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부위원장: 김순남(KEDI)

위 원: 김병주(대교협), 김용(청주교대), 김정희(대교협), 양성관(건국대),
염철현(한국디지털대), 이수정(KEDI), 최창섭(강릉대)

6) 재정·기금위원회

위 원 장: 송기창(숙명여대)

부위원장: 김병주(영남대)

위 원: 강경석(인하대), 김현진(국민대), 나민주(충북대), 박종필(제주대),
이 강(초당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7) 학술편찬위원회

위 원 장: 이윤식(인천대)

부위원장: 이일용(중앙대)

위 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노종희(한양대), 박재윤(KEDI),
박종렬(대교협), 서정화(홍익대), 임천순(세종대), 정영수(충북대)

8) 정책연구위원회

위 원 장: 박영숙(KEDI)

부위원장: 전제상(경주대)

위 원: 김수영(강릉영동대), 박보배(국제교육진흥원), 박삼철(단국대),
박승희(이화 여대), 유길한(진주교대), 유웅상(KEDI), 이장익(아주대)

9) 윤리위원회

위 원 장: 허병기(교원대)

부위원장: 조석훈(청주교대)

위 원: 김용일(한국해양대), 박수정(충북대), 우정기(경성대), 이광현(부산교대),
이제봉(울산대), 정희욱(목포대), 조남근(세명대)

10) 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

위 원 장: 조동섭(경인교대)

부위원장: 유현숙(KEDI)

위 원: 김민희(충북대), 박호근(한국체대), 반상진(전북대), 성병창(부산교대),
이차영(한서대)

11) 소석논문상위원회

위 원 장: 정태범(전 교원대)

부위원장: 강영삼(전 국민대)

위 원: 강무섭(강남대), 강인수(수원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전 국민대),
이종재(서울대), 주삼환(전 충남대), 허병기(교원대, 2007년 학술지 편집위원장)

2. 학술대회

❖ 제152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4월 25일(토) 09:00-18:00
- 장 소 : 경북대학교
- 주 제 : 대학입시 자율화-그 의미와 과제

❖ 제153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6월 27일(토) 10:00-16:30
- 장 소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용봉홀
- 주 제 : 학교자율화 시대 교장의 핵심역량 증진 방안

❖ 제154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24일(토)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7차 연차대회 및 155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2월 12일(토) 10시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주 제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3. 학술집담회

❖ 제 3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집담회

- 일 시 : 2009년 8월 22일(토) - 23일(일)
- 장 소 : 지리산 산동지역
- 내 용 : 「교육행정학 연구방법 특강」과 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

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서울교대 본관 7층 회의실
- 안 건 : 200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제1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2월 13일(금) 12:00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2009년 상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3월 6일(금) 12:00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학회지 편집 건

❖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일 시 : 2009년 4월25일(토)
- 장 소 : 경북대학교
- 안 건 : 200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제2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4월25일(토)
- 장 소 : 경북대학교
- 안 건 : 2009년 하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 제1차 소식논문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12시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소식논문상 선정 작업 추진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7권 (2009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 ③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게 재 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2008년까지: 300,000원, 2009년부터: 400,000으로 연구비 수혜 논문 게재료 인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입금계좌: 우체국 501072-02-315947 예금주: 신재철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09. 5. 1 ~ 2009. 7. 31)

- 일반회원: 강대중, 기건순, 김대명, 김승미, 김현수, 류충현, 린일란, 민승현, 박귀성, 박찬주, 서경혜, 서

금택, 손병철, 송영숙, 오승현, 유영설, 이계숙, 이용웅, 이유헌, 이윤정, 이정연, 장영옥, 최만
덕, 최수영, 최수희, 최정희, 추미애(이상 27명)

- 기관회원: 충남교육청 행정자료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이상 2개 기관)

※정보가 잘못 표기되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입현황(2009. 5. 1 ~ 2009. 7. 31)

- 일반회원: 권인탁, 김경희, 김영철, 김종만, 류명혜, 류민영, 박상완, 박수정, 박준기., 서영인, 손희권,
신범석, 오세희, 오혜정, 옥장흠, 이기명, 이재덕, 이정선, 전재근, 정우영, 정재홍, 조영하, 조
평호, 황연성, 허은정, (이상 25명)
- 학생회원: 노지영, 최상균 (이상 2명)
- 기관회원: 전주교육대학교, (이상 1개 기관)

※알립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아래의 회원님께서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학회비'로 100,000원 입금하신 분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동정

❖ 축하드립니다.

강경석: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소 소장 겸임) 취임

권인탁: 평생교육의 선도대학인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학교(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객원
교수(2007-2009)를 마치고, 한국에서의 현장경험과 미국에서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평생교육 행정
및 경영(학지사, 2009)" 교재 출간

김민희: 충북대학교 교육개발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초빙부교수로 부임

박종필: 제주대학교에서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로 부임

오영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장 겸 인문정보대학원장 취임

오영재(2009). 한국의 중등학교 문화와 교육정책. 서울: 문음사

조석훈: 조석훈(2009). 교육학의 유혹. 교육과학사.

주삼환: 주삼환, 이석열, 정일하 편역(2009). 미국의 최우수학교 블루리본스쿨. 서울: 학지사

주현준: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행정경영학과 전임강사 임용

주요 소식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153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서 성료 교장, 교감, 교육행정가, 대학원생, 교수 140명 참여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 요인으로 인정하는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과 학교장의 핵심 역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3차 학술대회'가 성료되었다. '학교 자율화시대 교장의 핵심 역량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교장, 교감, 교육행정가, 대학원생, 교수 등 14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중재 교수(서울대)가 '학교 자율화 시대 교장의 핵심 역량'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으며, 신상명 교수(경북대)가 '학교장 양성 및 임용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한유경 교수(이화여대)가 '학교장 평가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김이경 교수(충남대) 교수가 '우수 학교장의 지도성 특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홍원표 교장(전남 대동향교 초등학교)과 노창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전 광주 운남고등학교 교장)이 우수 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각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장의 실천가들과 대학의 이론가들이 각각의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인 신재철 교수(전남대학교 교육학과)는 이번 학술대회가 "학교 현장의 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학교장의 역량 신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제 3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집담회' 8월 22일-23일 지리산 산동지역서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 위해 연구방법 워크숍과 연구 논문 발표에 초점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제 3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집담회'를 오는 8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리산 산동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는 2008년 처음 시행한 '예비연구자 학술포럼'의 명칭을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집담회로 개칭하여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대학원생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공 교수를 초청한 연구방법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에 있거나 학위 논문을 마친 대학원생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 작성 과정부터 발표까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

22일(토)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 회 식	
14:00 -15:30	[특강 1] 교육행정학 연구의 양적 연구 방법	박소영(한국교육개발원)
16:00 -17:30	[특강 2] 교육행정학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	김병찬(경희대학교)
17:30 -18:00	질문 및 응답	
18:00 -23:00	지리산 별빛과 함께하는 우정의 마당 - 저녁식사 - 나의 삶, 나의 꿈 : 선배가 말하는 연구자의 삶 - 후배와 함께하는 노래, 시, 그리고 춤 - 별이 빛나는 밤의 대화	사회: 이동훈(전남대학교)

23일(일)

07:00 - 08:30		아침 식사	
09:00 - 11:30	[논문 발표 및 토론]		사회: 김인희(강원대학교)
	- 주제1 -	초등학교 조직의 현상학적 체험 연구	- 발표자: 손병철(경북대학교)
	- 주제2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의 교장의 Hegemony 역할 탐색	- 발표자: 신화수(경북대학교)
	- 주제3 -	학교조직변화의 특징과 그 영향요인 분석	- 발표자: 강석봉(부산대학교)
11:30 - 12:00	종합 토론 및 폐회		사회: 정지선(서울대학교)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해 산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회비납부 : 온라인 입금 (광주은행 074-107-495294 예금주: 신재철 한국교육행정학회)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405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62)530-0625
- F A X : 062)530-2359
- 회 장 : 신재철 (062-530-2350, 011-9770-2038)
- 부 회 장 : 진동섭(02-3460-0114, 010-8934-7650)
- 사 무 국 : 염민호 사무국장(062-530-2597, 010-3157-4517)
김소영 총무간사(062-530-0625, 010-9961-7373)
김재홍 편집간사(016-622-3664)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

